

GWANGJU

FOOTBALL CLUB

May 2015 / NO. 02

MONTHLY MAGAZINE






www.GWANGJUFC.com



NEWS

- 광주, 6월을 돌풍 재현의 달로 만든다
- '원클럽맨' 임선영, 새로운 역사를 쓰다!
- 광주의 점유율에 관한 모든 것!
-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SPECIAL 유망주

Hyundai Oilbank K LEAGUE CLASSIC

06월 17일 (수) 19:30	06월 20일 (토) 16:00	06월 27일 (토) 17:00	07월 01일 (수) 19:30	07월 05일 (일) 18:00
 대전	 성남	 포항	 인천	 서울

천신만고 끝에 목표 이론 광주의 5월



2승 1무 2패. 광주 FC의 5월 성적이다.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리 나쁜 성적도 아니다. 애초 광주의 5월 목표는 2승이었다. 빡빡한 경기 일정과 상대 팀들을 고려한 목표였다. 그리고 광주는 5월의 마지막 경기에서 목표를 달성했다. 험난함의 연속이었으나 계획된 움직임 속에 소기의 성과를 올렸다.

5월은 광주에 특별한 달이었다. 떠도는 생활을 마치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광주는 3월에 리그가 개막한 이후 4경기 동안 원정 경기를 치렀고, 4월엔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홈 경기를 가졌다. 광주월드컵경기장이라는 홈 구장이 있었으나 7월에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 경기장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과 마주했다. 더군다나 선수들의 숙소도 목포국제축구센터 내부로 이동하며 광주 팬들과 거리적으로 멀어졌다. 지난 시즌 승격의 기쁨과 감동을 이어나갈 매개체가 없었다. 그렇기에 홈으로 다시 돌아온 지난 5월이 광주엔 특별한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다가온 5월 3일, 전남 드래곤즈와의 9라운드 경기에서 광주 선수들은 광주월드컵경기장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경남 FC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 이후 처음으로 경기를 펼치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광주의 상황은 좋지 못했다. 앞선 5경기에서 2무 3패를 당하며 5경기 무승이라는 부진에 허덕였다. 승리의 기억이 점점 사라지자 다가온 홈 5연전도 부담스러웠다.

광주의 사령탑인 남기일 감독은 5월의 홈 5연전 목표를 2승으로 잡았다.

다소 소박한 듯했으나 선수들의 컨디션과 수준, 상대 팀들을 고려한 목표였다. 광주는 전남과의 첫 경기부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3-2 승리를 기록하며 6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챙겼다. 홈 복귀전에서 의미 있는 승리이자, 오랜만에 만난 홈 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 안방으로 돌아오자 확실히 자신감을 얻고 분위기까지 반전한 광주였다.

하지만 이후 경기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수원 삼성, 포항 스틸러스, 부산 아이파크를 차례로 상대한 광주는 단 한 골도 성공하지 못하는 골 결정력 문제에 시달리며 1무 2패를 당했다. 전남전 승리로 쉽게 이를 것 같던 목표 달성도 멀어졌다.

그렇게 5월 30일 홈 5연전의 마지막 경기인 제주전이 다가왔다. 광주는 배수의 진을 쳤다. 6월과 7월에는 또다시 원정 경기만을 치러야 하기에 한동안 팬들과 만날 수 없었다. 승리가 간절함만큼 광주는 물오른 공격력의 제주를 1-0으로 제압했다. 4경기 만에 득점과 승리를 가동하며 부진 탈출에 성공했다.

광주는 5월의 시작과 끝을 기분 좋게 보냈다. 물론, 목표였던 2승을 달성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천신만고 끝에 계획대로의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 광주에 5월은 목표를 이뤘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목표를 달성해가며 얻어낸 결과물이 컸기 때문에 광주는 다가오는 6월에도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 전진한다.

집 떠난 광주, 6월을 돌풍 재현의 달로 만든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과 7월을 맞이하는 광주 FC다. 한 시즌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선 꾸준한 승점 관리를 통해 시즌 막판 마지막 힘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승점 쌓기에 열을 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다. 하지만 광주는 험난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7월에 열리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로 인해 6월과 7월에 홈 경기를 가질 수 없다. 홈 경기가 없으니 원정 경기로만 경기 일정이 빠르게 채워져 있다. 원정 경기 일정을 헤아려보니 무려 10경기다. '지옥의 원정 10연전'이다.

침착산중이다. 5월에서야 홈 경기를 치르며 안방으로 돌아온 광주였지만,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집을 쓰고 또다시 전국을 누벼야 한다. 분명 이번 원정 10연전은 광주에 위기이자 기회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체력만 소비하다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더 끈끈한 조직력을 얻으며 반전을 이룰 수도 있다.

광주가 자신 있는 건 이미 원정 경기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광주는 개막전부터 원정 4연전을 치르며 한 달을 보냈다. 이미 시즌 초에 연속된 원정 경기를 경험했기에 경기 준비나 몸 컨디션 관리에 더 수월할 수 있다. 앞서 터득한 방법을 통해 새로운 비법을 더 찾는다면 원정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원정 10연전이라는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광주는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홈 승률이 2승 3무 3패 승률 43.8%지만, 원정 승률이 무려 4승 1무 2패 승률 64.3%이다.(15라운드까지의 기준) 집 떠나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광주다. 특히 광주는 개막 후 원정에서만 2승 1무를 달리며 돌풍의 핵으로 떠오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후 5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해 돌풍이 시들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원정에서 돌풍을 만들어냈기에 이번 6월 원정 경기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재현해내겠다는 각오다.

6월의 출발은 환상적이었다. 5월 30일 제주 유나이티드를 꺾고 홈 경기를 마무리한 광주는 6월 3일 14라운드 전남 드래곤즈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지옥의 일정을 시작했다. 전남전에서 선제 실점을 허용하며 상승세를 잊지 못하는 듯했으나 후반전에 점수를 뒤집으며 2-1 역전승을 따냈다. 첫 단추를 잘 끼운 광주는 이어진 15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도 1-0 승리를 기록했다. 수비수 정준연이 퇴장당하는 악조건이었으나 끈끈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그 어렵다는 수원 원정에서 승리를 맛봤다. 광주 구단 역사상 수원전 첫 승리였고, 시즌 첫 3연승이었다.

마치 집 떠난 광주 선수들의 설움이 경기장에서 표출된 듯한 느낌이었다. 상대의 안방을 광주의 안방 마냥 몰려서 지 않는 적극성으로 돌진했다. 확실히 경기가 거듭될수록 광주는 더 강해지고 있다. 매 순간이 위기의 연속이지만, 독한 정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이런 분위기라면 광주의 6월은 잊지 못할 행복한 달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광주 선수들은 아직 배고프다. 남은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를 쏴서 담이 잠잠해진 돌풍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원클럽맨’ 임선영, 100경기 출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다!



광주 FC의 주장 임선영이 새로운 역사를 썼다. 임선영은 지난 5월 30일(토)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프로 통산 1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했다. 평범한 100경기 출장 기록이 아니다. 오직 광주의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대기록이다. 그동안 광주에서 여러 출장 기록을 세운 선수가 많았으나 임선영처럼 모두 광주에서만 뛴 것은 아니었다.

임선영의 100경기 출장은 광주 구단에서도 최초의 기록이다. 임선영은 ‘원클럽맨’이다. 2011년 광주의 창단 멤버로 합류해 매 시즌 20경기 이상씩을 꾸준히 소화하며 5년 만에 값진 성과를 얻었다. 제주전에서 잊을 수 없는 경기를 펼친 임선영은 “그전까지 팀이 승리하지 못했는데 홈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만 했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경기 후 축하해주는 영상이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영광으로 느껴져요. 제가 광주에서 뜻깊은 날들을 많이 보냈고, 광주가 나에겐 정말 좋은 팀이라 생각하며 감사했어요”라며 100경기 출전 경기를 회상했다.

임선영의 대기록이 주목받는 이유는 오직 광주에서만 이뤄진 최초의 대기록이기 때문이다. 임선영은 “자부심보다는 영광이죠.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 광주의 첫 100경기 출장 선수가 되어 너무 감사해요”라며 주장다운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100경기에 나서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임선영이다. 임선영은 팀의 강등을 경험하며 추락을 같이 했고, 다시 일어서는 승격을 주도한 광주의 산 증인이다. 프로 데뷔 시절 막내로서 선배들 눈치를 봤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후배들이 그의 눈치를 볼 정도로 팀 내 위치가 변했다. 이제 임선영은 어린 시절 꿈꿨던 목표들을 하나둘씩 이뤄가며 다른 고지를 향해 전진한다. 어린 시절 프로데뷔의 꿈을 광주에서 이뤘고, 지난 시즌 7골 1도움을 기록해 자신의 최대 득점에도 성공했다. 더불어 가장 원대한 꿈이었던 1부리그 승격을 현실로 만들며 정점을 찍었다. “요즘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확실히 광주가 저에게 많은 걸 해줬고 저 또한 광주에서 많은 일을 이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임선영은 광주 창단 멤버로서 그 누구보다 광주의 내, 외부적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수다. 그러므로 현재 광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느끼고 있다. 특히 광주는 시민구단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리그를 치르고 있다. 이에 대해 임선영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광주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시민분들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광주에 클럽하우스가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클럽하우스가 생기면 좋겠어요. 올 시즌이 끝난 뒤, 제가 군대에 가더라도 후배들이 좀 더 좋은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라며 간절한 소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임선영에게 광주란 어떤 의미였을까? “광주로 입단했을 때부터 인연이 시작됐죠. 좋았던 기억들이 더 많았어요. 항상 동고동락하는 친구 같아요. 제 모든 걸 알고 있고, 저도 광주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임선영이 꿈은 명장면 BEST 3!

BEST 1

2011년 3월 5일 vs 대구 FC

“첫 프로 데뷔전이자 광주의 창단 첫 번째 경기였다. 풀타임을 뛰며 3-2 역전승을 따냈다. 승리 이후 꼭 찬 관중석을 한 바퀴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BEST 2

2011년 3월 12일 vs 수원 삼성

“데뷔전 바로 다음 경기였다. 수원 원정이었다. 상대 쪽을 마주했는데 수원 11명의 선수가 앞에 있었고 그 뒤 수원 서포터즈들이 1, 2층을 꽉 채웠다. 너무 놀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응원 소리에 운동장이 울렸다.”

BEST 3

2014년 12월 승강PO vs 경남 FC

“1차전 (조)용태 형의 중거리 슈팅이 아직도 눈에 선하고, 수비 맞고 들어간 내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돼 기분 좋았다. 2차전 때는 아파서 교체됐다. (김)호남이가 골 넣고 나에게 달려와 안겼다. 당시 허벅지가 근육이 좋지 않았는데 호남이를 안느라 애를 먹었다.”



100경기 출장 기념 간단 TALK!

Q. 팀 내 가장 축하해준 선수는?

A. 김호남

Q.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A. 여름

Q.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은?

A. 김미선씨, 본부석 입구 쪽 두건 쓰신 남성분

Q. 나의 후계자는?

A. 송승민

Q. 광주에 필요한 건?

A. 클럽하우스

통산 100경기 출장



임선영은 체력왕!



출발 좋고 마무리 깔끔한 남자!

4년간 가장 많은 출전을 기록한 달은 3월, 4월, 10월, 11월로 시즌 초반과 마무리에 강한 모습!



‘점유율을 잡아라!’

광주 점유율 축구의 모든 것

광주 FC는 확실한 팀 색깔을 지니고 있다. 지난 시즌부터 남기일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조직력을 다지며 광주만의 축구를 펼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거쳤다. 그 노력의 결과로 K리그 클래식 승격을 이뤄냈다. 광주의 축구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속을 꺼내보면 철저한 계산 아래 진행된다. 그 출발점은 바로 점유율이다.

6월 3일(14라운드)까지 진행됐던 경기 점유율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광주는 14경기 전체 평균 54.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2개 구단 중 당당히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90분 내내 상대보다 앞선 점유율을 가진 채 경기를 주도했다는 이야기다. 선수 구성이 화려한 전북과 수원은 점유율 순위 9위와 5위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광주가 돌풍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점유율이다.

광주는 높은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며 상대를 압도한다. 즉, 상대보다 더 공을 오래 소유하고 광주가 원하는 경기 운영을 펼친다는 뜻이다. 특히 이 높은 점유율 자체가 수비적인 점유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다. 광주는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 높은 점유율을 자랑하는 게 특별하다. 골키퍼부터 시작되는 공격의 빌드업은 수비수를 거쳐 중원 그리고 공격진에 배달된다. 측면 수비수인 이종민, 정호정, 이으뜸 등은 남다른 패스 능력으로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한다. 이어 임선영, 여름 등이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며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스루패스를 전달하거나 연계플레이를 통

해 상대 수비를 흔든다.

상대 선수들은 미리 광주의 전략을 예측하고도 막기 힘들다.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템포에서 패스가 돌아가고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창출하기에 체력과 함께 생각마저 뒤따라줘야 한다. 그만큼 광주의 축구는 위력적이다. 남기일 감독은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을 강조한다. 상대보다 더 많이 뛰어야 기회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상대의 점유율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빠르게 뺏아낸 뒤, 공격권을 다시 잡는 것이다. 광주는 공격수들부터 적극적인 압박을 가해 상대에 부담을 안겨준다. 수비수들 또한 전체적인 라인을 위로 올리며 간격을 벌리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모든 선수가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 셈이다. 오히려 내려앉으면 상대에 공격 기회를 줄 뿐 광주가 구사하는 축구를 펼칠 수 없다. 이에 광주는 최고의 수비가 공격이라는 모토로 팀 색깔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광주는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을 통해 점유율을 잡는다. 이 점유율을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생성하고 득점을 노린다. 아직 골 결정력에 대해 아쉬움이 크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있어 광주의 점유율 축구는 더 위력적일 것이다.



광주의 미래를 책임질 SPECIAL 유망주



NO.40 이찬동 MF

“우리는 매 시즌이 고비다. 여건상 수준급의 선수들을 데려올 수 없기에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 새로운 얼굴을 찾아야 한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광주 FC를 이끌고 있는 남기일 감독의 현실적이지 미래를 바라본 고민이다. 시민구단인 광주는 재정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다른 팀들 또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은 피차일반이나 제대로 된 숙소와 훈련장을 갖지 못한 광주의 현실은 더 안타깝기만 하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은 젊은 선수들을 키워 꾸준히 팀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남기일 감독은 유망주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어 하고, 이들이 팀에 자리 잡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래의 광주를 책임질 특별한 유망주들을 지금부터 소개하고자 한다. 여건상 세 선수밖에 소개하지 못하는데 광주엔 숨은 잠재력을 지닌 보물들이 넘치고 넘친다.

먼저, 벌써 광주의 핵심전력으로 자리 잡은 이찬동이다. 포백 수비진 위에 홀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는 이찬동은 투지 넘치는 플레이로 수비를 보좌하고 있다. 불과 지난 시즌 광주에 합류한 신인이지만, 경기를 거듭할수록 쌓여가는 경험은 광주의 큰 재산이다. 광주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에도 소집된 이찬동은 명실상부한 광주의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어, 이찬동과 함께 지난 시즌 광주에 합류한 공격수 송승민도 숨겨진 보물이다. 송승민은 공격 전 진영을 누빌 수 있는 멀티 자원이다. 186cm의 큰 장신을 앞세운 고공 플레이가 뛰어난데, 공중 능력뿐만 아니라 오

히려 발재간이 더 돋보일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 드리블 치는 스피드 또한 빨라 상대 수비수들이 막아내기 어려운 스타일의 선수다. 송승민은 지난 시즌에 주로 교체 자원으로 분류되며 아쉬운 데뷔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올 시즌 폭풍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꼽으라면 송승민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의 잠재력이 서서히 발휘되는 중이다. 비록, 아직 리그 데뷔골을 기록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보인다면 득점은 시간문제라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입단한 신인 공격수 주현우를 주목해야 한다. 주현우는 남다른 이력을 지녔다. 1990년생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병장이다. 다른 선수들보다 빨리 군 문제를 해결해 미래도 창창하다. 축구 선수로서 2년을 쓴다는 건 치명타가 될 수도 있었지만, 주현우는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광주 입단으로는 꿈을 이뤄냈다. 이미 남기일 감독의 눈도장을 받아 출전 기회를 얻고 있는 그는 측면 공격수와 최전방 공격수 임무를 소화하며 광주 공격의 활로를 열어놓아 주고 있다.



NO.30 주현우 MF



NO.16 송승민 MF

2015시즌 광주 FC 선수 명단

							
남기일 감독	장기봉 수석코치	기우성 GK컬코치	길레미 피지컬 코치	이준영 주치의	GK 제종현	GK 주정우	GK 권정혁
							
DF 김영빈	DF 정준연	DF 오도현	DF 이도뜸	DF 이용준	DF 이종민	DF 권영호	DF 송성범
							
DF 류범희	DF 안영규	DF 마철준	DF 정호정	DF 조철인	MF 여름	MF 허재녕	MF 송승민
							
MF 박선홍	MF 조용태	MF 권수현	MF 박성용	MF 홍태곤	MF 김의신	MF 주현우	MF 안성남
							
MF 박일권	MF 이찬동	FW 임선영	FW 질베르토	FW 파비오	FW 김호남	FW 김성현	

2015시즌 홈 경기 일정

08월 12일(수) 19:00		전남 드래곤즈	09월 09일(수) 19:00		인천 유나이티드
08월 19일(수) 19:00		대전 시티즌	09월 13일(일) 14:00		부산 아이파크
08월 23일(일) 19:00		제주 유나이티드	09월 23일(수) 19:00		전북 현대
08월 29일(토) 19:00		울산 현대	10월 04일(일) 14:00		수원 삼성

광주FC SNS



광주FC 홈페이지
www.gwangjufc.com



광주FC 트위터
@GWANGJU_FC



광주FC 페이스북
/gwangjufc

 **KSP**  **KSPO**  **보해양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발행일 2015년 06월 10일 / 발행처 (주)광주시민프로축구단 -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풍암동) 광주광역시 체육회관 3층
 전화 (062)373-7733 / 홈페이지 http://www.gwangjufc.com / 기사 더스포츠 허회원 기자 / 디자인 더스포츠(www.thesports.cc)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는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